

르포/ 판세 요동치는 순천 보선

후보 많아 혼란... “야권연대 되긴 된거야?”

“워낙 많은 사람이 나와서 누굴 찍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못하겠어”
“근데 야권연대가 되긴 된 거야? 됐다면 야권연대 후보를 찍어야 맞겠지”

선거 9일을 앞둔 18일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이곳에서 만난 순천시민들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순천 선거판처럼 아직까지 누굴 선택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 번덕스럽고 우중충한 이날 날씨처럼 ‘오리무중’인 상태였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서 야권연대가 처음으로 시도돼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나온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무더기로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유권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43) 후보와 무소속 허상만(67)·조순용(59)·허신행(68)·박상철(51)·구희승(48)·김경재(68)후보 등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김경재 후보를 제외한 5명이 무공천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여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 특성상 후보 선택에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인 김모(54)씨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민주당이 무공천 하는 바람에 야권연대 후보를 선택할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후보를 ‘무공천’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정모(66)씨는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를 하지도 않은 곳에서 야권 연대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출마해 민주당 표를 분산시키는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며 무소속 후보들의 ‘합종연횡’도 조언했다. 자영업자인 이경호(43)씨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한 만큼 지지표도 분산돼 혼전이 예상된다”



4·27 재보선을 9일 앞둔 18일, 순천시 연향동의 한 주택가에서 행인들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순천은 야권 단일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 모두 7명이 나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당, 정동영 최고 지원유세에 고무 민주 성향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제기

다”라며 “2~3명의 후보가 연합, 단일후보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순천 도심을 중심으로 야권연대 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였다.

회사원 이상진(41)씨는 “민주당이 대의를 위해 무공천을 했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 (무공천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한 것도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야 3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대규모 지원유세 탓인지 민노당의 김 후보 선거캠프도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상인 정모(46)씨는 “야권 단일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고 되물을 뒤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마치 노육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딱히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무소속 고령 후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가나오고, 이를 후보 7명으로 나누면 당선 안정권 표수는 1만5000표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과거 선거 통계를 빌려 전망하고 있다.

결과, 순천 보선은 변수가 워낙 많아 추경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이 무척이나 실리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중복 문제 지역별 통합 특화산업 육성 바람직”

광주·전남 방문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18일 “광역경제권별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통합해 지역별로 하나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청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태양광, 풍력, 광산업, 친환경 부품산업이 추진되고 이와 별도로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등) 전남권 전략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광주·전남은 물론 대구·경북, 충청권에서도 추진하는데 지역 특성과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면서 “3개년도 선도산업이 올해 말, 전략산업의 경우 2차년도 사업이 내년 말에 각각 끝나는 만큼 지식경제부와 협의, 두 사업을 통합해 지역 경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의 ‘저속철’ 논란에



대해서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국책 사업에는 타임과 우선 순위 등 여러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만 밝혔다.

무안과 군산, 무안과 광주공항 간 ‘공항 갈등’에 대해서도 “공항은 포스트 랑만 시대 지자체들의 중요한 숙원사업”이라며 “접근성 등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광주시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며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해 지역발전위원회가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과확בל트 입지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꿀 사나운 광주 서구 공 다툼

국회의원들이 이어 구청장까지 “육교예산 10억 내가 따왔다”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와 금당산을 연결할 육교 예산 10억원을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신이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까지 가세하면서 국회의원들과 구청장이 ‘지나치게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풍암호수와 금당산간 육교설치 10억원, 양동시장 진입도로 7억원 등 총 2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또 “김종식 구청장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결과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특별교부세 확보 과정에서 김 청장의 ‘공로’

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육교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 이정현(비례대표)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서구)의원이 각각 자신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 청장마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16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육교 예산이 자신들이 노력해 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구를 출마가 거론되는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육교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김종식 구청장과 풍암동, 금호동 주민대표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수차례 현장 실사를 한 뒤 행정안전부를 무려 5차례나 만나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구원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육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두차례 만나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금년도 착공에 필요한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 청장의 노력도 일부 있었으며, 덕분에 숙원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인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겨냥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예산확보 액수가 ‘뺨’(0원)’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지역 정치인들에게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여야 예결위서 추경편성 공방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 “구제의 지원예산 확보와 서민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무와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요인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예결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장병안 의원은 “현재 가용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정도로 구제역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면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추경 없는 (구제역)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기업영업전문위험컨설턴트

삼성화재 CRC

모 집 공고

삼성화재와 함께 손해보험 최고의 금융전문가로서 꿈을 키워 나갈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삼성화재 기업영업전문 위험컨설턴트 CRC(Corporate Risk Consultant)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고 유능한 인재만을 선발하여, 최고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육성된 전문가로서, 국내 50여만개의 중소기업과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위험진단컨설팅과 종업원 및 근로자의 복지 / 세무 / 금융컨설팅을 해주는 최고의 손해보험 기업영업전문 위험컨설턴트입니다. 모집내역을 참고하여, 삼성화재와 함께 최고의 기업금융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 집 대 상	지원부문 기업체 및 단체 대상 기업보험 전문가 해당전공 분야
모 집 인 원	0명
활 동 지 역	서울 및 수도권, 경기(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활 동 내 역	기업체 및 단체대상 각종 기업보험 컨설팅 · 퇴직/임대보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단체시장 컨설팅 영업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위한 정기/자동차 및총 컨설팅영업 · 개인보험 컨설팅
수 당 체 계	회사가 정한 활동조건 및 임직요건 충족시 · 초기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수료후 코드부여시 150만원 지원 · 초기 1년간 매월 최소 200만원 수수료 지원 · 코드부여후 활동을 위한 개인PC 구입비 100만원 한도 분할 지원
각 종 지 원	회사가 정한 수수료 규정상 일정 지역 충족 시 · 경조비, 조의물품, 명절선물 · 장기활동지원금, 금융자격취득 축하금, 신종단체보험가입 · 개인연금 지원, 자녀학자금 및 교육비, 건강검진 지원 등

지 원 자 력

- 서울, 수도권,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근무 가능한 남성 및 여성
- 대기업 퇴직자(배우자) 우대
- AFPK, 펀드투자상담사 등 금융관련 자격, 법무/세무/부동산 관련 자격 소지자 선발시 우대

모 집 일 정

- 서류접수 : 2011. 4. 18 (월) ~ 4. 27 (수)
- 설명회 : 5월 4일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진행(서류전형 합격자 별 개별통보)
- 인 터 뷰 : 5월 11 ~ 12일

서 류 접 수

- 삼성화재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 CRC 지원
- 지원서 e-mail/팩스 접수

(개별 이력서 또는 당사 홈페이지내 지원 양식)

활동지역	e-mail	fax	문의
서울(수도권)	crc.ssm@samsungfire.com	02-772-8219	형태영 책임 (02-772-8204)
경기(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crc2011@samsungfire.com	02-319-0259	CRC 담당자 (070-7111-3838)

thinkNext 삼성화재 SAMSUNG